

랑세스, 제주에서 <러버 데이> 개최

독일계 특수화학기업 랑세스(LANXESS)가 11월23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2011 랑세스 러버 데이(Rubber Day Korea)> 행사를 개최했다.

<러버데이>는 랑세스가 합성고무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09년부터 개최한 행사로 합성고무의 최신 기술 및 동향을 공유하는 컨퍼런스로 국내에서는 처음 개최됐다.



악셀 C. 하이트만(Axel C. Heitman) 랑세스 회장은 “한국의 자동차 및 타이어기업들이 메이저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직접 지켜봤다”며 “세계 4-5위의 타이어, 자동차 생산국인 한국은 랑세스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타이어 및 자동차기업, 정부, 학계 관계자 등 270여명이 참석했으며, <친환경 이동성(Green Mobility)>을 실현하기 위한 고성능 합성고무의 최신 기술과 타이어 에너지효율 등급제 시행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랑세스코리아 고제웅 사장은 “이동성 증대는 물론, 한국과 유럽을 시발로 전세계적으로 타이어 에너지효율 등급제가 확대되고 있어 고효율 친환경 타이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랑세스는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바이오 기반의 EPDM(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고무도 소개돼 큰 관심을 끌었다.

석유가 아닌 사탕수수를 기반으로 생산한 EPDM은 기존 합성고무와 같은 품질은 유지하면서도 이산화탄소(CO₂)를 90%까지 줄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2011년 11월부터 본격 생산을 시작했다. <이해미 기자>

<화학저널 2011/11/23>